

## 35 선박의장품 제조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성섬유증

성별	남성	나이	54세	직종	선박의장품 제조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2007년 12월 1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년 5월 9일 내원 1달 전부터 발생한 양손 저린감, 우측 팔 통증, 어지럼증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 검사 상 혈색소 수치 4.3으로 심한 빈혈 소견보여 수혈을 시행하였고, 2015년 5월 12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혈색소 수치 6.2로 낮은 소견 보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5월 13일 대학병원에서 만성 특발성 골수성섬유증 진단을 받고 항암제 투약 및 수혈을 받고 있으며 골수이식 적합여부검사 이후 외래 추시고 있는 중이다. 근로자는 근무할 당시 도장작업의 영향으로 벤젠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섬유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5년 11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년 12월 16일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2007년 12월 1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파이프 선별장에서 파이프 결품 처리 업무를 하였다. 이 작업은 선별 예정인 파이프가 하차하면 파이프를 선별하고, 선별된 파이프를 크레인으로 파레트에 탑재하면 파레트에 탑재된 파이프를 추레라 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다. 2009년 9월부터 13개월 간 의장 2부로 부서를 옮겨 데크하우스 의장품 설치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약 13개월동안 데크하우스 선행의장작업 시 주변에서 동시 작업하는 도장작업으로 인해 벤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 조선업 도장작업자들의 유기용제 및 벤젠노출에 관한 문헌을 종합한 결과 2000년 이후에는 조선업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와 도료에는 벤젠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미량이며,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하였고, 간접적 노출이었으며, 노출 기간도 13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노출시간도 주 1~2회 2~3시간에 불과하여 의미 있는 벤젠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 4 유해인자

- 화학적요인(벤젠)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5년 5월 9일 약 1달 전부터 발생한 양측 손 저린감, 우측 팔 통증, 어지럼증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였다. 2달 전에 시행한 건강검진 상 빈혈 소견 보였다는 본인 진술이 있었고 종합병원 내원당일 시행한 혈액검사상 혈색소 수치 4.3으로 심한 빈혈 소견 보여 수혈 시행하였고 5월 12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혈색소 수치 6.2로 낮은 소견 보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015년 5월 13일 대학병원에서 만성 특발성 골수성섬유증 진단을 받고 항암제 투약 및 수혈을 받으며 골수이식 적합여부검사 이후 현재 외래 추시고 있다. 수술력 상 치핵과 치루 수술한 과거력 외에 특이한 과거력은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력 또한 특이 사항 없었다. 흡연력은 하루 반갑씩 20년간 피운 10갑년의 과거 흡연자이며, 2015년부터 금연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2007년 입사하여 약 13개월간 데크하우스 선행의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가 있다. 근로자는 약 13개월 동안 데크하우스 및 엔진룸의 사후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장작업으로 인해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13개월 정도의 노출 기간과 1-2회/1주, 2-3시간/1회의 노출시간을 고려해볼 때, 의미있는 벤젠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만성골수성섬유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끝.